

## 3

## 일본 천황가(天皇家)의 신성(神性)

한반도 내에서 백제가 멸망한 후

황족이 취한 자기방위 조치와

상징적 통치자 위치로의 전략

유교 이론에 의하면, 황제들이란 하늘로 부터 위임을 받아 통치를 하는것이다. 하지만 덕이 있는 통치자에게 위임된 통치권은, 제위(帝位)가 부덕한 사람에게로 승계될때, 다시 회수 될수도 있는 것 이므로, 왕조가 때때로 바뀐다는 것이 정당화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예서의 천황제도란, 신들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 것이며, 이 신화적인 통치권의 위임은 천황족이 일본을 영원히 다스릴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사기는 천황족의 영구불변한 신성과 불가침성을 극히 신화적인 형태로 암시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또 천황족의 신성한 근본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강조하고 있다. 천황을 신의 위치로 승격 시킨다는 것은 자기 인격의 위기, 즉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또 백제멸망 이후 천황족의 장

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었다.

천황이란 전통적인 왕이 아니라, “신의 화신(化身)”으로서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혁명이란 것을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황의 자리라는 것은 변경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부여된 것이고, 또 혈통적 세습의 권위에 의해서만 차지할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후대에 천황족이 실권을 이양 해버린 뒤에도, 천황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인, 신성한 존재로서 계속 국가위에 군림할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와 유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한국을 지배하던 종교는 샤머니즘이었다. 이 샤머니즘은 한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땅에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샤워와 페어뱅크(195473)는 “여러가지 종교적 의식을 수행한 성직자 계급은 . . . 아마도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샤만들의 일본식 변형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쓰노다 등(1964: 21-22)에 의하면, “신토오(神道)란 토착 종교가 아니었다 . . . 신토오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샤머니즘적이고 정령(精靈) 숭배적인 행위는 전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또한 발견 되었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토오 라는 것을 순수한 일본의 신앙이라고 말 할수 없다 . . . 신토오 숭배의 가장 오래된 중심지는 동해(東海)연안에 위치한 이즈모(出雲)신사였다. 이즈모는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 이었고, 대륙의 문화는 바로 한반도를 통해 일본에 도달했다”는 것이다.<sup>1</sup>

그래파아드(KEJ: 7. 126)는, “고분시대(서기 300-710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륙으로 부터의 커다란 영향이며, 이 시대는 일본을 하나의 국가로서 탄생케 하는 극적인 변화의 시기였는데, 장래의 연구활동은, 신토오 관행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한일(韓日)관계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

<sup>1</sup>알렌 그래파아드(KEJ: 7. 125)는 신토오가 “일본 역사의 어명기에 천천히 등장해서, 나라(奈良, 서기 710-794년)와 헤이안(平安, 794-1185년)시대에 종교적 조직으로 분명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아시아의 다른 종교적, 철학적 조직들과 지속적이고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겪게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서기의 기록들은, 최초에 신토오(神道)관행의 주류를 형성토록 도와준 것이, 신라의 영향이기 보다는 백제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서기(NII: 77)는 소가대신(蘇我卿)이 백제 사절에게 [서기 555년에] 조언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나라를 원래 창건한 신은(原夫健邦神者), 하늘[백제?]과 땅 [야마토 왜?]이 별개로 갈라지고, 초목들이 말을 하고 있던 시대에, 하늘 [백제?]로 부터 내려와(自天降來) 이 나라를 세운 신(호무다, 應神?)이다. 내가 요즘 듣자니, 당신네 나라에서는 그 신에 제사 지내는 것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不祀). 만약 이제 부터라도 당신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신궁을 수리하여(修理神宮) 다시 그 신령에게 제사를 올리기 시작하면(奉祭神靈), 당신네 나라는 가히 융성하게 될 것이다.”<sup>2</sup> <3. 2. 15>

서기 552년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것은 백제였다. 하지만 불교는 일본에서 서기 587년까지 상당히 억압을 받았다.<sup>3</sup>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백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서기 384년 이었다. 신라에서는 6세기 이후로 부터 불교가 강력하게 육성 되었고, 고려 왕

<sup>2</sup>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30-32)는 백제의 고이왕이 서기 240년에 천지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祀天地山川) 기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비류왕 자신이 서기 314년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에 희생(犧牲)을 잡아서 각(脚)을 떼으며(祀天地 王親割牲), 근초고왕은 서기 347년에 천신과 땅귀신에 제사를 지냈다(祭天地神祇)는 기록을 하고 있다. <5. 6. 4>

<sup>3</sup>홀(1971: 4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6세기 중엽, 야마토 통치자가 한국에서 전해 받은 불상을 숭상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자문을 구한것은, 당시 일본의 대호족들 사이에 커다란 분쟁을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론의 분열은, 야마토계의 야심많은 방계 자손으로, 대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비교적 신흥의 소가(蘇我) 씨족을, 모노노베(物部大連, 세습장수들)와 나카토미(中臣, 신토오 의식 담당자들)를 중심으로 뭉친, 야마토계를 오랫동안 모셔오던 씨족들의 보수연합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대두 시켰다. 이들 파벌들 사이의 분쟁은 야마토를 수십년 동안 분열시켰다. 하지만 서기 587년 새 종교의 도입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온 소가(蘇我)가 모노노베(物部)를 물리치고 불교의 도입을 확정시켰다.”

조 때에 와서는 국교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왕조 에서는, 유교가 지배적 국가 이념이 되었다. 자연히 한국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도입된 이후, 샤머니즘은 여러가지로 위장된 형태로 살아 남기도 하고, 또 하층계급 사이에서는 번성 하기까지 했지만, 국가적 으로는 크게 억압되고 그 지위도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샤머니즘이 천황가의 후원을 받아, 좀더 세련된 신토이즘으로 전환되어 불교와 유교에 동등한 번영을 구가 해왔다.<sup>4</sup>

라이샤워와 페어뱅크(1958: 472)에 의하면, 야마토 황족은 이샤먼 숭배를, “야마토의 아마테라스(天照大御神) 숭배의 우월성과, 다른 씨족의 숭배신들과 수장들이 야마토에 종속관계에 있다는” 공식적 신화속에, 아주 정교하게 통합 시켰다는 것이다.<sup>5</sup>

일본서기의 처음 두 장(章)은 신토오의 기초를 형성하는 신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불교의 전파는 신토오를 조직화 시키고, 한개의 일관성있는 종교조직으로 승화 시켰다. 일본에서는 불교와 신토오가 공존했을 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호혜관계를 즐겼다. 사실 아마테라스와 부처는 한개의 실체의 양면으로 간주 되었었다(KEJ: 7, 126 참조). 천황족은 신토오(神道)를 통해 천황에게 신격(神格)을 부여 하려고 시도 했다.

오오바야시(198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 황족의 가계를 보면 닌토쿠(仁德)이후 상당기간, 수많은 근친 결혼 사례를 발견할수 있다 . . . 이러한 결혼 관습은 통치자의 권위가 너무 높기

<sup>4</sup>바알리(1974: 6)는 “우리가 신토오에서 발견할수 있는 그러한 원시적 종교는, 여타의 세계에서는 벌써 보편성을 가진 신앙들에 의해서 흡수되어 버렸는데, 그 외딴 시골구석 같은 일본에서는, 현대의 이시간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sup>5</sup>라이샤워(1970: 15-1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지(氏)시대의 종교적 신앙과 관행은, 일본의 종교적 주류의 하나로 지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던 이들 신앙이, 후세에 신토오라고 불려져, 불교와 구별이 되었다 . . . 지난 한세기반 동안에는, 이 신토오가 이와 관련된 고대 신화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결속과 광적인 애국심을 고취하는 영감의 원천으로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황족 밖에서 동등한 위치의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 . 황족과 다른 씨족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 뿐아니라, 당시의 이념적 편향 역시, 고대 일본에서 황족간의 근친 결혼을 행하게 만든 요인이 된것 같다 . . . ”

부레쯔(武烈, 재위 498-506년)가 서거한 후, 그의 친족 가운데 후계자를 발견할수 없게 되자, 미쿠니(三國)에서 오오진의 5대손을 찾아내서 케이타이(繼體, 재위 507-531년)로 옹립했다. 이 사실에 대해 사카모토(坂本, 1984: 19)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한다: “케이타이를 선택해서 왕위에 모신 대신들 중의 어느 한사람이, 만약 원했다면, 그 자신 스스로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와 같은 발상을 해 본적도 없었다. 이 사실은 그 왕조의 초창기때 부터도,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아니면 왕위에 오를수 없다는 것이, 강력한 씨족들 사이에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안코(安康, 재위 453-456년)가 그의 조카에게 암살 당했을 때나, 또 스슈은(崇峻, 재위 587-592년)이 소가 우마코(蘇我馬子)의 명령을 받은 야마토 아야의 코마(東漢直駒)손에 살해 되었을 때에도, 황족의 피를 받은 왕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뿐만 아니라 킨메이(欽明, 재위 539-571년)의 딸이 스슈은을 계승해서, 최초의 여자 천황인 스이코(推古, 재위 592-628년)가 되었다. 이 사실들을 보고 사카모토(1984: 20)는 “스이코의 왕위 계승은, 아마테라스의 후손이기만 하면 남자이건 여자이건 왕위에 오를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천황들의 신성(神性)은, 통치자들이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창작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 이 혈통관계는 천황에게 신성한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다. 천황들을 정치적으로 종립이면서, 범할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므로써, 이론상으로 상상할수 있는 모든 모반 행위로 부터 그 지위를 수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사실 황족이 취한 이 조직적인

방어대책 덕분에,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성한 제국”이라는 관념이 뿌리 깊히 박히게 되었다. 천황의 위치가 신성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그 찬탈자는 현신(現神)을 배반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야심을 품은 장수들한테는 왕위라는 것이, 탈취 해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비토 마사히데(KEJ: 2, 102)가 말하는 것처럼, 후세의 “막부(幕府)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했을 때에도, 쇼군은 천황의 신하로 남아 있었고, 결코 왕위를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베히(1971: 30)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누가 권력을 잡고 국가를 다스리더라도, 천황에 의해 합법성을 인정 받게 될때까지는, 그의 세력이란 것은 폭력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이, 천황이란 것을 하나의 정치적 기구로서 천년이상 영속시켰고, 일본 역사상 그 존재가 거의 파괴될만한 수많은 경우에도, 천황이 그의 자리를 소멸되지 않도록 수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천황으로 부터 공식적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 수많은 정치적 투쟁의 요인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천황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황의 적이 되고, 또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 하려는 사람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바알리(1974: 12)는 “[6세기 이후] 몇세기에 걸쳐 강력한 통치자가 몇명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본의 천황이란 일반적으로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안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모양으로, 천황이 정치적 권력투쟁의 무대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사기와 일본서기 저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 천황의 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정 되었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구구절절 써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또 그 의미를 가장 국수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소위 국학(國學) 전통에 의해 강력히 조장 되었던 것

이다. 일본의 국학이란 일반적으로 카모(賀茂眞淵, 서기 1691-1769년)에 의해 수립되고, 모토오리(本居宣長, 서기 1730-1801년)에 의해 완성 된다음, 히라타(平田篤胤, 서기 1776-1843년)에 의해, 국가주의 이념으로 채택 되게끔 보급 된것으로 간주된다.

국학이란 순수히 고사기, 일본서기, 만요오슈우(萬葉集) 같은 고전에만 의거해서, 고대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구명 하는데 전념하는 학문이다. 즉, 국학은 일본의 고전과 옛시대를 이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카모의 만요오시대(萬葉時代)에 대한 심취(心醉)는, 정신적인 근원과, 또 중국화된 불교 혹은 주자학파가 신봉하는 고전의 도덕적, 공리공론적 해석에 오염되지 않았던, 사실 그대로의 시대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동경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국학의 핵심적 목표는, 신화적인 옛시대에 발생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근거로, 스메라 미코토(皇尊)의 길이고 또 아마테라스의 길인, 바로 일본 고래의 정신(古道)을 찾아내어 분명하게 정의 하는 것이었다. 모토오리는 고대 일본 사람들이 도덕을 논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르게 행동을 했었다고 믿었다. 타하라(1973)에 의하면, 모토오리의 가르침이란 “천황의 권위를, 장단점 같은 것을 따지지 말고, 하늘의 신으로 부터 부여된 것이라 생각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모토오리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창조의 신화와 그 이후의 역사를 사실로서 받아 들이고, 또 그 내용을 진리로서 무조건 수용했다. 타하라(1973)에 의하면, 토쿠가와(徳川) 시대의 국학자들은 막부(幕府)의 존재를 신이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막부와는 협력을 천황에 대한 충성, 그리고 신성한 미치(道)의 실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긴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서기 1192-1333년)의 미나모토(源) 계열은 그들의 조상을 천황 쪽으로 거슬러 올라 갈수 있었고, 무로마치(室町) 막부(서기 1338-1573년)의 아시카가(足利) 계열 역시 그들의 조상을 미나모토로 거슬러 올라갈수 있었으며, 토쿠가와 막부(서기 1603-1867년)의 토쿠가와 계열 또한 아주 흥미하게나마, 미나모토 조상과의 연결을 추

적할수 있었다.<sup>6</sup> 말하자면, 700여년에 걸친 일본의 무가(武家) 통치 마저도, 천황족의 후예를 지도자로 모신 무사계급에 의한 통치로 간주 할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그러나 일단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결과로 막부가 붕괴하자, 국학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새 국가를 지지하는데 아주 적합한 이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학의 이념 내용은 국가 교육정책에 흡수되어 대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고야스 노부쿠니(KEJ: 4, 259)에 의하면 “이들 국학자들은, 아버지 신의 신성한 뜻을 실현하는 백성들의 노력이야 말로, 바로 이들 신민(臣民)의 천황에 대한 의무라고” 믿었다 한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국학을 통해 일본정신을 내세우려는 이념적 노력이란 것은, 세계 제 2차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과 함께 끝장이

<sup>6</sup>서기 814년에 사가(嵯峨, 재위 809-823년)는, 왕조의 분가 형식으로, 자신의 50명의 자녀중 33명에게 미나모토(源)라는 성씨를 만들어 주었다. 미나모토 가문은 보통 겐지(源氏)라고 불렸다. 이 최초의 사가 겐지에 추가해서, 그 근원을 세이와(清和, 재위 858-876년), 우다(宇多, 재위 887-897년), 무라카미(村上, 재위 946-967년) 등에 추적할수 있는 미나모토 가계들이 있었다.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와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모두가 세이와 겐지로 그들 조상을 추적할수 있었다.

<sup>7</sup>사무라이(侍)는 10세기초에 지방 농민계급으로 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무장한 농민의 존재는 농촌지역의 치안문란과 자위수단의 필요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미 서기 792년경에, 야마토 조정은 전국적인 농민징병 정책을 포기하고, 지방 관리들에게 민병대를 조직해서 지방치안을 유지토록 만들었다. 초기 에는 사무라이들이 전쟁임무가 끝날때마다 농사짓는 본업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11세기에 와서는 그 무장집단들이 좀더 영구적이고 봉건적 존재로 발전했다. 사무라이는 중세가 시작하는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실질적 지배계급이 되었다. 하지만 사무라이 계급들은 대부분 황족의 후예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모셨다. 이 농민 출신 사무라이 계급은 현대화되는 일본의 정부와 기타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로서 확립되었다. 폴 바알리(KEJ 7: 7) 참조. 즉, 처음 단계에서는 백제 사람들이 일본을 정복하여, 쌀농사를 짓고 있던 토착 야요이-고분시대 농민위에, 스스로 지배자층을 이루어 다스렸으나, 다음 단계에 와서는 바로 이 농민계급에서 발생한 사무라이에게 권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난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로 오늘날에도 일본사회의 각계각층이, 일본인의 인종적, 국가적, 혈통적 근원을 찾기에 몰두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이것은 마치 서기 663년 백제가 멸망했을때 야마토 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을 나타내고 있는것 같다.